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The Knowledge Structure of Multicultural Research Papers in Korea

장 임 숙(Im-Sook Jang)**
장 덕 현(Durk-Hyun Chang)***
이 수 상(Soo-Sang Lee)****

〈 목 차 〉

Ⅰ. 문제 제기
Ⅱ. 연구의 설계
1. 데이터의 수집
2. 색인어의 선정
3. 동시단어 네트워크와 k-core 분석
Ⅲ. 다문화연구의 현황과 주요 연구주제
1. 다문화연구의 현황
2. 다문화분야의 주요 연구주제
Ⅳ. 다문화연구의 네트워크 분석
1. 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 분석
2. 연도별 다문화 지식구조의 분석
3. 주요 학문분야별 다문화 지식구조의 분석
Ⅴ.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 지식체계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된 등재(후보) 학술지에 수록된 다문화분야의 논문에서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동시단어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k-core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2010년까지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문화분야의 핵심 연구주제를 추출한다. 둘째, 다문화연구가 집중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다문화 지식구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셋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다문화연구가 활성화된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핵심 주제와 다문화 지식구조의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키워드: 다문화연구, 지식구조, 네트워크분석, 동시단어분석, k-core 분석

ABSTRACT

Analyzing research paper published from 2005 to 2010, this study aims for analysing the research paradigm on multi-culture and understand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ulticultural knowledge via scientometric. Co-word network constructed by keywords in documents and their co-occurrence relationships is a kind of mapping knowledge structure. A total of 4,521 and 1,373 papers published between 2005 and 2010 were retrieved from the KRF Registered Journals and Proposed Journals. This paper employs k-core analysis method in the field of mapping knowledge structure to analyze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of multicultural research in Korea. And Netminer 3 is employed to visualize the networks in this paper.

Keywords: Multicultural Research, Knowledge Structure, Network, Co-Word Analysis, K-Core Analysis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411-B00026).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mukk73@naver.com)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dchang@pusan.ac.kr) (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slee@pusan.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1년 11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5일 • 최종심사일: 2011년 12월 28일

Ⅰ. 문제 제기

민족의 분리 이산이라는 60년 분단 역사를 가진 한국은 불과 2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급속한 다민족·다문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듯 다문화연구도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다문화연구열풍이라고 불릴 만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다문화가 각종 심포지엄과 학술대회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다문화 관련 학과가 대학에 설치되었고, 다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지와 연구센터가 늘고 있다.

다문화연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다문화연구의 양적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현상으로서 다문화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보다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관련된 주된 학문적 쟁점조차 부각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1] 실제로 다문화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외국에서 생성된 이론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생산하여 적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 학문으로서 요구되는 실천적 원리와 기법도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이것은 대학의 다문화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이 통일되지 못한 채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의 중요한 임무와 과제는 다문화연구의 증가현상에 대한 비판보다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해 다문화연구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문화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문화의 이론적·실천적 지식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문화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특성을 파악하여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 현재까지 국제이주·소수자·재외한인·다문화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여 기존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한 윤인진 외(2009)의 연구가 유일하고,[2] 이외에 인문학[3] 혹은 교육학[4] 등의 특정 분야에서 연구동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연구들은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정성적인 접근법에 의존하고 있는

1) 부천다문화센터 블로그, 〈http://cafe.naver.com/multiculturefamily/8485〉 [인용 2011. 11. 24].
2) 윤인진, 유태범, 양대영, "국제이주, 소수자, 재외한인, 다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논문집(2009. 12), pp.237-248.
3) 전영준, "한국의 다문화연구 현황," 다문화콘텐츠연구(2009), pp.109-130. ; 박경하, "한국의 다문화 연구 현황과 과제," 중앙사론, 제33집(2011. 6), pp.87-124.
4) 전재영, "다문화교육 연구의 메타 분석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제35권(2011), pp.29-54. ; 김민환,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경향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0권, 제1호(2010), pp.61-86. ; 천희영 등, "국내 유아교육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 아동교육, 제17권, 제3호(2008), pp.29-39. ; 곽윤숙, "유아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교육 관련연구 분석 : 「유아교육연구」(2000년-2010년)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제3권, 제2호(2010), pp.141-161. ; 서현아, 김정주, "유아 다문화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제65집(2010), pp.59-78. ; 김상림, 안효진, 이시자, "유아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제11권, 제2호(2011), pp.147-171.

데, 사실상 매우 적은 수가 아니라면 자료의 수집과 분류, 해석 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만일 적은 수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대표성이 문제시되고,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직관, 경험, 통찰력에 크게 의존한다는데 한계가 있다.[5)]

최근에는 이러한 정성적인 접근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방법론의 효율성, 보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정보학적 분석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계량정보학적 분석방법은 학문분야별로 생산된 학술문헌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학문분야별 연구 영역과 패턴, 패러다임의 변화를 규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6)]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에는 동시인용분석(Co-citation analysis), 동시추천분석(Co-nomination analysis), 저자서지결합분석(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 동시단어분석(Co-word analysis) 등이 있다.

다문화의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체계화를 위해 본 연구는 계량정보학적 분석기법의 하나인 동시단어분석을 이용하여 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를 분석하고 연도별・분야별 연구패러다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단어분석은 과학의 역학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처음 제안되었는데, 동시출현하는 단어의 쌍을 기초로 텍스트의 대상 콘텐츠로부터 연구주제를 추출하고 주제들 간의 연계를 발견하며, 나아가 시기별 비교분석을 통해 과학적 지식의 발전과정과 구조적 관계, 지식의 발전과 진화의 경계 혹은 학문적 경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7)]

본 연구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까지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문화분야의 핵심 연구주제를 추출한다. 둘째, 다문화연구가 집중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다문화 지식구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셋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다문화연구가 활성화된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핵심 주제와 다문화 지식구조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Ⅱ. 연구의 설계

1. 데이터의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KRF)의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논문이고, 수집 대상 논문의 발행시점은 2010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먼저 데이터의 수집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로 지정검색이 가능한 DBPIA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5) 이수경 등, "한국 간호학 연구주제의 사회연결망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제41권, 제5호(2011), p.624. ; Qin He, "Knowledge Discovery Through Co-Word Analysis," *Library Trends*, Vol.48, No.1(summer 1999), p.134.
6) 서은경, 한인구, "경영정보학분야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경영정보학연구, 제7권, 제3호(1997), pp.145-165.
7) Qin He, *op. cit.*, p.138. ; Limei Zhao and Qingpu Zhang, "Mapping knowledge domains of Chinese digital library research output, 1994-2010," *Scientometrics*, Vol.89(2011), p.54.

DBPIA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학술지의 학문분야가 한정되고, 특히 다문화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과학분야의 경우 일부 학술지만 제공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DBPIA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학문분야의 학술지, 특히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는 KISS(한국학술정보)를 통해 수집 데이터를 보완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한 검색어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이민', '외국인', '소수자', '다민족', '문화다양성'이라는 9가지이다. 이들 검색어는 '다문화'라는 키워드로 검색시, 추출된 논문들에서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들을 출현빈도순으로 정리하고, 출현빈도가 상위권에 랭크된 키워드들 중에서 공동연구자들이 상호검토를 통해 선별한 것이다. 이들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은 총 2,373편이고, 이 중에서 연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통해 다문화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논문, 검색과정에서 중복된 논문, 그리고 저자가 부여한 한글 키워드가 없는 논문을 제거하여 총 1,536편을 최종 추출하였다. 여기서 동시단어분석에 사용될 논문은 다문화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학술지 논문 총 1,373편으로 제한한다.

2. 색인어의 선정

색인어란 그 문헌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것으로 연구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동시단어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색인어의 추출이 중요하다. 먼저, 201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혹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색인어를 검색한 결과 1,536편의 논문에서 저자가 부여한 한글키워드 8,532개를 수집하고, 이 중에서 중복 키워드를 제거하여 5,333개의 색인어를 추출하였다.

그런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출현빈도별로 키워드를 리스트화한 후에는 일종의 통제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추출한 색인어에는 동일한 개념을 가진 상이한 용어의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의 키워드들이 다수 포함되면 이들 간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중요한 연계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는 비표준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8] 중복되는 동의어의 정리는 주요 색인어의 분산을 막고 결과의 오차를 줄여준다.[9] 따라서 정교한 동시단어분석을 위해서는 추출된 색인어에 대한 적절한 통제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분석될 단어의 정규화 과정으로, 시소러스나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의거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전문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10] 본 연구는 다문화에 관한 시소러스가 부재한 이유로

8) Whittaker, "Creativity and conformity in science : title, keyword and Co-word analysis,"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19(1989), pp.473-469.

9) 김혜리, 박용태, "Co-word 분석법을 이용한 기업수준의 기술지도 : 작성방법과 활용전략,"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2004), p.11.

10) 이준영 등, "문헌계량분석기법을 이용한 효율적 벤치마킹 대상 분석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6), p.106.

공동연구자들이 전체 색인어를 수차례 검토한 후 통제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 〈표 1〉과 같이 동의어・유사어, 단수/복수, 광의어/협의어, 조사유무・생략어, 영어번역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추출된 키워드에 대해 통제작업을 실행하였다.

〈표 1〉 색인어의 통제 기준

기 준	사 례
동의어・유사어	•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국내이주외국인근로자, 외국인이주노동자, 외국인이주자(노동자), 이민노동자, 이주인력, 외국인력
단수/복수	• 타자, 타자들
광의어/협의어	• 동화, 사회동화 • 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
조사유무・생략어	• 문화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 문화다양성협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영어번역의 차이	•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아정체성

본 연구는 색인어 통제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용어들의 정리와 용어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에 의한 상이한 용어 사용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서종남(2010)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다문화 용어의 혼용에 대하여 의미의 혼돈과 어려움을 표하고 있었으며, 다문화 관련 용어의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사용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11]

통제작업을 통해 최종 추출한 색인어는 총 5,019개이다. 이 중에 출현빈도가 상위 20위에 포함된 색인어는 결혼이주여성 188회, 다문화주의 170회, 다문화교육 151회, 이주노동자 147회, 다문화 121회, 다문화사회 106회, 다문화가정 98회, 이주민 96회, 정체성 69회, 세계화 57회, 소수자 57회, 이주 50회, 문화다양성 49회, 이민 46회, 다문화가정자녀 42회, 사회통합 39회, 국제결혼 35회, 디아스포라 33회, 한국어교육 33회, 인권 32회 등이다. 그리고 동시단어분석을 수행할 대상 논문 총 1,373편에서 추출한 최종 색인어는 4,521개이다.

3. 동시단어 네트워크와 k-core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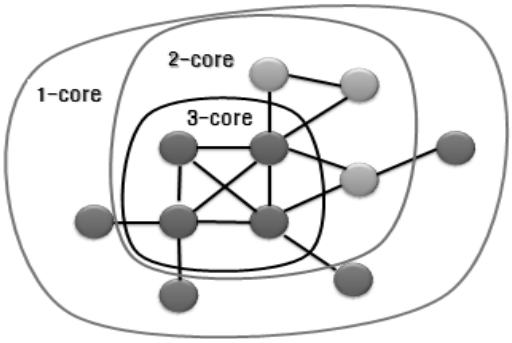
동시단어분석(Co-word Analysis)은 문서의 특정 연구대상의 아이디어간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 텍스트에서 단어 또는 명사구가 동시에 출현하는 패턴을 이용하여 연구 분야 및 대상의 지식구조를 분석하는 계량정보학적 콘텐츠 분석기법이다.[12] 단어란 일정한 뜻을 담고 있는 말의 최소 단

11) 서종남, "한국사회의 다문화 관련 용어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16권, 제2호(2010), pp.145-168.

12) 김미현 등, "Co-word분석법을 통한 디지털금융 연구의 프레임워크 도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11권, 제1호(2011), p.86.

위라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특정 단어를 통해 대상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된 단어들 간의 관계를 통해 대상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한다. 만일 두 개의 단어가 많은 논문에서 동시에 출현하면, 이들 논문들은 유사할 뿐 아니라, 전달하는 주제 간에 일정한 연계성을 함축한다고 보는 것이 동시단어분석이다.[13] 따라서 동시단어분석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생산된 문서에 존재하는 키워드들의 연결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핵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출현하는 키워드를 대상으로 생성하는 네트워크는 동시단어 네트워크이며, 이는 모든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네트워크의 하위집단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처럼 모든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컴포넌트분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컴포넌트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k-core' 방법이다.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노드는 오직 하나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노드는 많은 노드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한 컴포넌트에서도 응집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연결정도(degree) 개념에 의해 응집력을 측정하여 컴포넌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 k-core 분석이다.[14] 여기서 연결정도는 한 점이 다른 점과 연결된 수를 말하고,[15] core는 일정한 수의 연결정도를 가지는 노드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k값은 노드집단 내 노드들의 연결정도의 크기를 말하므로, k-core는 모든 노드들의 연결정도가 k이거나 그 이상인 노드들의 최대집단으로 구성되는 하위 네트워크로 규정될 수 있다. 예컨대, 〈그림 1〉과 같이 1-core 컴포넌트는 모든 노도의 연결정도가 1이상인 노드집단을, 2-core는 연결정도가 2이상인 노드집단, 3-core는 연결정도가 3이상인 노드집단을 가리킨다. 따라서 k값이 증가할수록 하위 네트워크가 되지 못하고 잔류되는 노드들이 증가하게 되고, 생성되는 하위집단은 동질적인 구조를 이루므로 남겨진 하위집단은 밀도가 높고 구조적으로 동질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k-core 분석

13) Zhao and Zhang, *op. cit.*, p.54.
14) 손동원, 사회네트워크 분석(서울 : 경문사, 2002), p.172.
15) 상게서, p.172.

따라서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된 등재(후보)학술지에 수록된 다문화분야의 논문에서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동시단어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k-core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다문화 관련 논문에서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추출한 후,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산출하고, 키워드 간의 연결정도를 기준으로 키워드들을 군집화 한다. 이 때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노드로, 키워드 간의 관계를 링크로 표현하여 시각화하면 다문화 지식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동시단어 네트워크의 k-core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Netminer 3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첫째, 동시단어분석을 통해 다문화 지식을 구성하는 키워드가 무엇이고, 어떠한 키워드가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규명하여 다문화분야의 핵심 연구주제를 추출한다. 둘째, k-core 분석을 통해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응집력의 높고 낮은 수준에 따라 키워드의 집합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여 다문화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밝힌다. 셋째, 연도별・학문분야별 네트워크구조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라 혹은 학문분야에 따라 다문화 지식네트워크에 어떠한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여기서 학문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류기준에 따라 공학, 농수해양, 복합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의약학, 인문학, 자연과학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연구가 활성화된 복합학,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의 다문화논문을 대상을 한다.

Ⅲ. 다문화연구의 현황과 주요 연구주제

1. 다문화연구의 현황

2010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 다문화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첫째, 논문의 저자 수는 대체로 1인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인 연구가 전체의 75.8%를 차지하고, 저자수가 늘수록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즉, 다문화연구는 공동연구보다 단독연구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문분야에 따라 사회과학분야와 인문학 분야에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공학, 농수해양, 의약학, 자연과학 분야는 연구가 매우 미진한 수준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가 가장 활성화된 이유는 다문화가 사회구조적 변화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현상을 진단하여 사회적,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에서 다민족화에 의한 다문화현상은 한국사의 전개와 민족문제, 그리고 문화사 및 다른 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추동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인문학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논문의 시기별 분포를 통해 다문화연구가 2000년 이후, 특히 대다수의 논문이 2005년 이후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체류외국인의 규모가 급증한 시점과 거의 일치

하며,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 정책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다문화연구의 현황

(단위 : 편, %)

구분	현 황							
저자수	1	2	3	4	5	6	7	8
	1,164	230	100	27	8	5	1	1
	75.8	15.0	6.5	1.8	0.5	0.3	0.1	0.1
분야	공학	농수 해양	복합학	사회과학	예술 체육	의약학	인문학	자연 과학
	7	3	72	781	42	12	581	38
	0.5	0.2	4.7	50.8	2.7	0.8	37.8	2.5
게재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	3	0	2	10	20	55	
	0.13	0.20	0	0.13	0.65	1.30	3.58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71	78	120	187	253	373	362	
	4.62	5.08	7.81	12.17	16.47	24.28	23.57	

2. 다문화분야의 주요 연구주제

본 연구는 2010년까지 발행된 등재(후보)학술지에 수록된 다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다문화의 핵심 연구주제를 파악하였다. 〈표 3〉은 전체 다문화연구와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와 이전의 연구로 나누어 출현빈도 상위 20위에 포함된 키워드들을 정리한 것이다. 2005년 이전의 연구는 이주노동자가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이고,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도, 불법체류자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반면에 2005년 이후에는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자녀, 한국어교육 등이 중요한 연구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전체 다문화의 연구와 2005년 이후 연구의 주요 키워드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2005년 이전 연구가 전체 다문화연구의 키워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다문화분야의 주요 연구주제

전체		2005년 이전		2005년-2010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결혼이주여성	188	이주노동자	21	결혼이주여성	184
다문화주의	170	이주민	10	다문화주의	161
다문화교육	151	다문화주의	9	다문화교육	146
이주노동자	147	이민	9	이주노동자	126
다문화	121	정체성	8	다문화	118
다문화사회	106	고용허가제	7	다문화사회	104

전체		2005년 이전		2005년-2010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다문화가정	98	세계화	6	다문화가정	96
이주민	96	다문화교육	5	이주민	86
정체성	69	동화	5	정체성	61
세계화	57	결혼이주여성	4	소수자	54
소수자	57	디아스포라	4	세계화	51
이주	50	문화정체성	4	문화다양성	46
문화다양성	49	민족정체성	4	이주	46
이민	46	불법체류자	4	다문화가정자녀	42
다문화가정자녀	42	산업연수생제도	4	사회통합	39
사회통합	39	이주	4	이민	37
국제결혼	35	이주문학	4	국제결혼	34
디아스포라	33	혼종성	4	한국어교육	33
한국어교육	33	노동시장	3	인권	32
인권	32	다문화	3	디아스포라	29

Ⅳ. 다문화연구의 네트워크 분석

1. 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 분석

동시단어 네트워크분석은 다문화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 대상 논문은 총 1,373편이며, 최종 색인어는 4,521개이다. 동시단어분석에 모든 색인어를 포함할 경우 색인어들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유의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선정된 색인어들 중에서 동시출현빈도가 5회 이상인 색인어 총 130개를 가지고 동시단어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컴포넌트분석방법의 하나인 k-core 분석을 통해 다문화 지식 네트워크의 특성과 내부에 존재하는 하위집단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k-core 분석기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다문화 지식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분석프로그램인 Ucinet과 NetMiner를 이용하여 피어슨상관계수와 코사인계수에 의한 유사도 행렬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 클러스터 내에 이질적인 성격의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다문화연구가 특성별로 세분화되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문화연구의 키워드들이 상호 응집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키워드들이 하나의 컴포넌트를 형성하고 있어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이 어려운 경우 수행하는 컴포넌트 분석방법인 k-core 분석을 통해 다문화 지식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문화 지식의 동시단어 네트워크는 키워드들 간에 응집력의 정도에 따라 〈표 4〉와 같이 14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상위 k-core에 해당하는 11-core 이상의 네트워크 속성은 〈표 5〉와

같다. 먼저, 14-core 집단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응집력이 높은 키워드들의 집합이다. 14-core 컴포넌트의 노드 수는 총 34개이고, 34개의 키워드 각각이 최소한 14개 이상의 링크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노드의 총 링크 수는 706개이다.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키워드들은 다문화사회의 원리와 다문화주체의 속성과 권리문제 등에 관한 주제들이다.

13-core 컴포넌트의 노드 수는 총 38개이고, 38개의 키워드 각각이 최소한 13개 이상의 링크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노드의 링크 수는 810개이고, 14-core 집단에 국적, 이민정책, 민족정체성, 교육이 연계를 이루고 있다. 12-core 컴포넌트의 노드 수는 총 44개이고, 44개의 키워드들이 최소한 12개 이상의 링크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노드의 링크 수는 954개이고, 13-core 집단에 일본, 적응, 탈식민주의, 독일, 동화, 타자성이 연계를 이루고 있다. 11-core집단은 네트워크 밀도[16]가 상대적으로 낮아 키워드 간의 연계와 응집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4-core 이하의 컴포넌트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한 성격의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다. 컴포넌트 중에서 가장 낮은 응집력을 보이는 집단은 2-core 컴포넌트로서, 네트워크의 130개의 노드 중에서 연결정도가 2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집합으로서, 당, 동북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에 포함된다. 컴포넌트라는 개념 자체가 최소 연결정도 1에서 연결된 점들이기 때문에, 어떤 컴포넌트이든지 1-core에 컴포넌트의 모든 노드들이 포함된다.[17]

〈표 4〉 다문화연구의 k-core 분석

k-core	키워드
14-core	다문화사회, 정체성, 소수자,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이주, 다문화교육, 이주민, 인종주의, 인권, 다문화주의, 문화다양성, 타자, 배제, 다문화, 혼종성, 세계화, 문화, 이주노동자, 이민, 다문화가정,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정자녀, 인종, 사회통합, 민족, 단일민족, 혼혈, 젠더, 시민권, 국민국가, 에스니시티, 디아스포라, 민족주의
13-core	14-core + 국적, 이민정책, 민족정체성, 교육
12-core	13-core + 일본, 적응, 탈식민주의, 독일, 동화, 타자성
11-core	12-core + 관용, 다양성, 한국, 차이, 문화정체성, 기억, 다문화시대, 문화적응, 차별, 시민교육, 한국어교육, 이슬람, 교육과정, 난민, 시민성, 동화주의, 문화다원주의, 시선, 북한이주민, 동아시아, 유럽연합, 하위주체, 탈영토화
10-core	11-core + 의사소통, 민주주의, 이중언어, 노동시장, 한국어교재, 국적법, 한국문학, 이중언어교육, 재현, 신자유주의, 소수민족
9-core	10-core + 화교, 미국, 호주, 시민사회, 국가정체성, 중앙아시아
8-core	9-core +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주문학, 이민법, 네트워크, 사회적지지,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 공동체, 공화주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차이, 소수자정책, 조선족, 한국어
7-core	8-core + 원주민, 이주의여성화, 문화상대주의, 문화정책,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질적연구, 교사교육, 다문화수용성, 편견, 사회적거리감, 상호문화성, 제국주의, 문화다양성협약
6-core	7-core + 언어발달, 다문화교육프로그램, 다문화문식성, 양육효능감
5-core	6-core + 결혼만족도, 다문화인식, 외국인범죄, 문화변용
4-core	5-core + 중국, 다문화음악교육, 한류, 통일적다민족국가론
3-core	4-core + 주거공간, 기거양식, 만주
2-core	3-core + 당, 동북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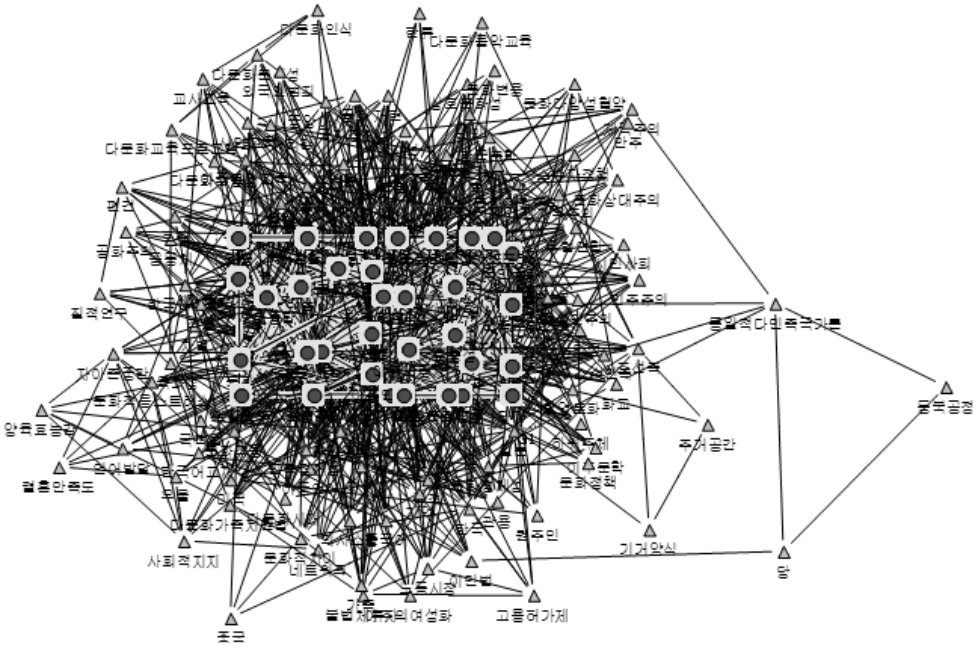
16) 네트워크 밀도는 연결망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수를 가능한 최대의 관계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17) 손동원, 전게서, p.174.

〈표 5〉 상위 k-core의 네트워크 속성

구분	14-core	13-core	12-core	11-core
노드 수	34	38	44	67
링크 수	706	810	954	1,458
평균 링크 수	20.765	21.316	21.682	21.761
네트워크 밀도	0.629	0.576	0.504	0.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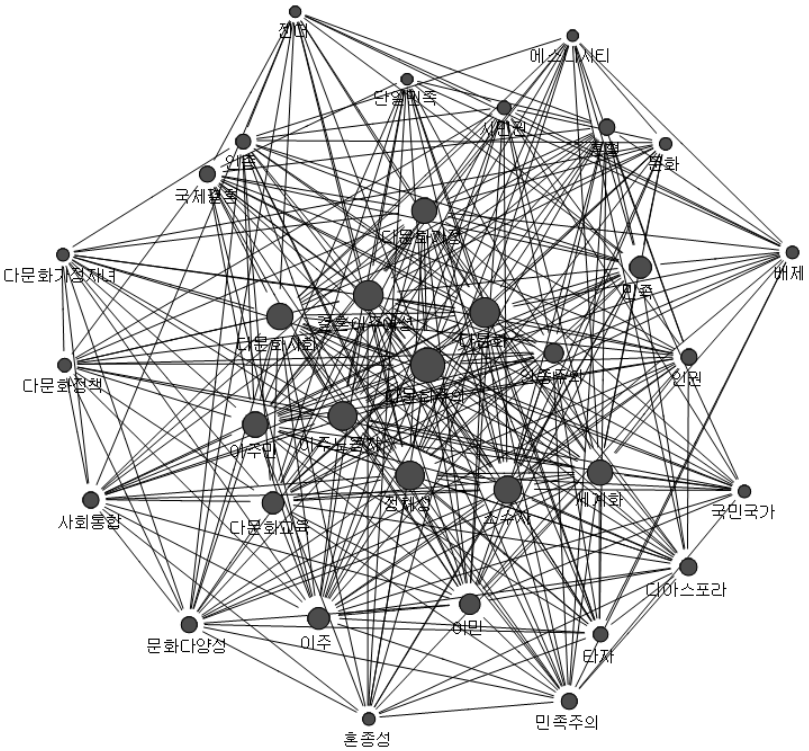
130개 키워드들 중에서 절반이 넘는 78개 키워드들이 10 이상의 연결정도로 응집되어 있다. 결국 상당히 많은 키워드들이 상호 응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그림 2〉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 2〉는 동시단어 네트워크를 도식화한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서, 여기서 키워드는 노드로 표시되고, 관계는 선으로 나타낸다. 연결 중심성이 크면 노도의 크기가 크고, 동시출현빈도가 높은 노드 간에는 근접하게 된다. 즉 동시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일수록 가깝게 위치하게 되고, 출현빈도가 낮은 키워드일수록 멀리 위치하게 된다. 네트워크의 전체구조를 보면, 다문화의 연구주제들이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앙의 점들은 14-core 집단의 키워드들이고, 10-core 이상의 하위집단에 포함된 키워드들은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10-core 미만의 하위 집단에 포함된 키워드들은 대체로 네트워크의 주변에 위치해 있다.



〈그림 2〉 다문화연구의 동시단어 네트워크 구조

〈그림 3〉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키워드 간의 응집력이 가장 높은 14-core 네트워크를 도식화한 소시오그램이다. 14-core 네트워크는 전체 키워드가 하나의 컴포넌트를 이루고 있고, 총 34개의 연결노드가 하위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키워드는 평균 21개의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밀도는 0.629로서,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1로, 모든 노드들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본다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키워드들 간의 상호연계와 응집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네트워크의 한 가운데는 다문화주의가 위치해있고, 이를 둘러싸고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소수자, 정체성, 이주노동자가 연계를 맺고 있다. 다시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 국제결혼, 인종, 젠더, 이주노동자 등의 키워드와 인접하여 연계를 이룬다. 그리고 다문화는 다문화가정, 인종주의, 소수자, 시민권과 연결되어 있고, 소수자는 정체성, 세계화, 이민, 타자, 인종주의와 인접하여 연계되어 있으며, 정체성은 이주, 소수자, 이민, 이주노동자라는 키워드와 연계를, 이주노동자는 이주민, 다문화교육, 이주, 정체성, 다문화사회, 결혼이주여성과 연계를 이루고 있다.



〈그림 3〉 14-core 네트워크 구조

2. 연도별 다문화 지식구조의 분석

다문화 지식구조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떠한 연구주제가 새롭게 부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동시출현빈도 2회 이상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2005년 이후 연도별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였다.[18] 먼저 2005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총 78편이고, 전체 키워드 수는 378개이며, 네트워크 구조분석에 사용할 출현빈도 2회 이상의 키워드는 총 32개이다. 32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k-core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05년 다문화 지식네트워크는 응집력이 상이한 6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6-core 컴포넌트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응집력이 높은 키워드들의 집합으로서, 컴포넌트의 노드 수는 총 6개이다. 6개의 키워드는 다문화주의, 이주노동자, 세계화, 시민, 소수자, 민족주의이다. 그 다음으로 응집력이 높은 키워드들의 집합인 4-core집단은 총 22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컴포넌트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2005년 다문화연구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주제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도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6〉 2005년 다문화연구의 동시단어 네트워크

k-core	키워드
6-core	다문화주의, 이주노동자, 세계화, 시민, 소수자, 민족주의
4-core	6-core + 정체성, 원주민, 불법체류자, 산업연수생제도, 이민, 인권, 다양성, 라틴아메리카, 문화다원주의, 일본, 다문화교육, 독일, 이주노동자운동, 시민권,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정책
3-core	4-core + 문화다양성, 이주민, 결혼이주여성, 문화정체성, 문화적차이, 다문화
2-core	3-core + 만주국, 다문화음악교육, 조선족

둘째, 2006년 다문화 관련 논문은 총 120편이고, 전체 키워드 수는 562개이며, 이 중에서 k-core 분석에 사용될 출현빈도 2이상인 키워드의 수는 45개이다. 다음 〈표 7〉은 45개의 키워드에 대해 k-core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2006년 다문화 지식네트워크는 응집력에 따라 6개의 하위집단이 존재한다. 가장 응집력이 높은 키워드들의 집합인 6-core 컴포넌트의 전체 노드 수는 6개로 나타났다.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키워드는 다문화주의, 문화다양성, 다문화교육, 사회통합, 동화, 이민이다. 2000년대 들면서 국제결혼비율이 증가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부적응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19] 하지만 당시 도입된

18) 연도별로 분석할 논문의 총 편수를 보면, 2005년 78편, 2006년 120편, 2007년 187편, 2008년 253편, 2009년 373편, 2010년 362편이다. 다른 연도에 비해 2005년 연구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동시출현빈도 2회 이상의 키워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9) 장임숙, "이주민소수자 정책의 정향과 정체성-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1호(2011), p.148.

사회통합대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일방적인 동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사회적·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통합, 동화, 이민 등이 다문화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주제가 2006년 다문화연구의 주요 쟁점이라는 사실은 5-core 컴포넌트의 키워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최소한 3개 이상의 링크를 형성하는 연구주제로 등장하였다.

〈표 7〉 2006년 다문화연구의 동시단어 네트워크

k-core	키워드
6-core	다문화주의, 문화다양성, 다문화교육, 사회통합, 동화, 이민
5-core	6-core + 정체성, 세계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이주의여성화, 이주, 이주노동자, 적응, 문화적응, 인종주의, 다문화사회, 극우주의, 이주민, 유럽연합, 혼종성, 디아스포라, 일본어신문, 국민
4-core	5-core + 한국, 문화
3-core	4-core + 문화상대주의, 중국, 배제, 소수자, 북한이주민, 민족주의, 문화적예외, 자유무역협정, 방송시장개방
2-core	3-core + 당, 교육과정, 노동시장, 다문화,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문화다양성협약, 이주문학, 민족평등

셋째, 2007년에 등재(후보)학술지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논문은 총 187편으로 2006년 논문편수에 배가 되었다. 전체 키워드 수는 723개이고, 이 중에서 k-core 분석에 사용될 출현빈도 2이상인 키워드의 수는 85개이다. k-core 분석 결과, 2007년 다문화 지식네트워크는 응집력에 따라 7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뉜다. 여기서 가장 응집력이 높은 키워드들의 집합인 7-core 컴포넌트의 노드 수는 총 13개를 가진다. 이 컴포넌트는 다문화주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교육, 국제결혼, 다문화사회, 다문화, 이주노동자, 이주민, 소수자, 국민국가, 민족주의, 동아시아, 북한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아시아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다양한 다문화주체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부터는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다문화가정자녀"가 중요한 연구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2006년 새롭게 등장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최소한 4개 이상의 링크를 형성하는 연구주제로 부각되었다. 2001년부터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국내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된 것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기라는 점에서 국내의 사회적 이슈와 연구주제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2007년 다문화연구의 동시단어 네트워크

k-core	키워드
7-core	다문화주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교육, 국제결혼, 다문화사회, 다문화, 이주노동자, 이주민, 소수자, 국민국가, 민족주의, 동아시아, 북한이주민
6-core	7-core + 인권, 정체성, 인종, 민족, 시민권, 문화다양성, 민주주의, 세계화
5-core	6-core + 타자, 다문화가정자녀, 다문화가정, 적응, 인종주의, 정보서비스, 이민법, 이슬람, 사회통합, 시민성, 참여, 이민, 이민정책, 이중언어, 가족관계, 조선족, 한국, 일본, 시민사회, 재일한인, 자영업자, 민족간유대관계, 종족자원, 민족금융기관, 다문화적배경, 주거공간, 기거양식, 상황이론, 정보처리, 정보추구, 커뮤니케이션행동

k-core	키워드
4-core	5-core + 질적연구, 교사교육, 문화적응, 민족문제, 편견, 문화정체성, 공화주의, 간도, 한류, 동남아시아, 디아스포라, 통일적다민족국가론, 타자의재현, 주변인, 말해지기, 자유이동, 소수민족, 동북공정, 고구려, 발해, 화교
3-core	4-core + 원주민, 이주, 사례연구, 이주의여성화, 농촌, 한국민족주의, 불법체류자, 고용허가제
2-core	3-core + 문화전쟁, 다문화문식성, 한국어교육

넷째, 2008년 다문화 관련논문은 총 253편으로, 전체 키워드 수는 1,017개로 증가하였다. 출현빈도 2이상의 키워드 99개를 대상으로 k-core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08년 다문화 지식네트워크는 응집력이 상이한 8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응집력이 높은 키워드들의 집합은 8-core 컴포넌트이다. 8-core 컴포넌트의 노드 수는 총 28개이며, 구성 키워드는 정체성, 소수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등으로 기존에 수위를 차지한 연구주제들이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 집합에 민족시인 "하종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하종오"는 다문화연구에서 다른 키워드들과 연결정도가 매우 높은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디아스포라", "타자" 등의 키워드와 동시 출현하면서 응집력이 높은 집단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하위집단군에 문학과 관련된 키워드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다문화연구가 사회과학에서 인문학의 핵심 연구주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2008년 다문화연구의 동시단어 네트워크

k-core	키워드
8-core	정체성, 소수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자녀, 다문화사회, 이주민, 인권, 이주노동자, 사회통합, 세계화, 하종오, 오리엔탈리즘, 디아스포라, 타자
7-core	8-core + 결혼중개업, 국제결혼, 몽골, 이주, 인권침해, 인신매매, 이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재, 혼혈, 민족, 젠더, 화교, 다문화시대, 소수자정책, 다문화정책, 교육과정, 다양성, 북한이주민, 동화, 프랑스
6-core	7-core + 참여정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중정체성, 인종주의, 이민정책, 전래동화, 국적법, 이중언어교육, 문화갈등, 시민권, 유럽연합
5-core	6-core + 이슬람, 학습능력, 문화다양성, 문화다원주의, 민족주의, 인종, 교사교육, 문화변용, 동화주의, 이주무슬림
4-core	5-core + 관용, 다문화교육신념, 관점, 문화정체성, 문화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고려인, 주거공간, 기거양식, 민족정체성, 이민법, 조지산타야나, 미국정체성, 새로운미국문화
3-core	4-core + 인구이동, 사회적지지, 다문화자료, 다문화문식성, 문화다양성협약, 유네스코, 한국계미국문학, 소수인종문학, 이민자서전, 불법체류자, 문화적응스트레스, 유민, 에스니시티, 네트워크, 재미한인, 조선족, 결혼만족도, 한국어
2-core	3-core + 교사의인식, 식민주의, 철학교육

다섯째, 2009년에 등재(후보)학술지에 수록된 다문화논문은 총 373편이고, 전체 키워드 수는 1,378개이며, 이 중에서 k-core 분석에 사용될 출현빈도 2이상인 키워드의 수는 170개이다. 〈표 10〉에 나타나듯이, k-core 분석결과 2009년 다문화 지식네트워크는 15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가장 응집력이 높은 키워드들의 집합인 15-core 컴포넌트의 총 노드 수는 15개이다.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키워드는 다문화교육, 배제, 다문화가정, 기억, 차별, 다문화, 차이, 인권영화, 관계적 감수성, 시선, 목소리, 친절, 감수성훈련, 소통가능한 문화, 긍정적 통합 등이다. 이 시기에는 이주민의 차별과 배제, 그리고 인권이 중요한 연구테마가 되고, 각 컴포넌트의 키워드들을 통해 이전에 비해 연구주제가 상당히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들어 다문화 지식 네트워크에 가장 많은 키워드들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연결정도가 높은 집단군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키워드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기존의 다문화 담론들과 새로운 연구주제들이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연구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전에 비해 다양한 관점에서 다문화현상에 대한 의미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2009년을 기점으로 다문화연구가 한 단계 높은 진화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표 10〉 2009년 다문화연구의 동시단어 네트워크

k-core	키워드
15-core	다문화교육, 배제, 다문화가정, 기억, 차별, 다문화, 차이, 인권영화, 관계적감수성, 시선, 목소리, 친절, 감수성훈련, 소통가능한문화, 긍정적통합
10-core	15-core + 이주민, 인종주의,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다문화주의, 소수자, 이주노동자, 노동문학, 다문화사회, 다문화정책, 사회통합, 이주, 다문화가정자녀, 다문화시대, 단일민족, 민족, 여성주의
8-core	10-core + 국적, 한국어교육, 민족정체성, 동화주의, 독일, 단일민족주의, 다가치사회, 한류, 한국문화정체성, 인문학의위기, 풍류정신, 한국문화콘텐츠, 문화보편성, 인, 한국어
7-core	8-core + 정체성, 이주문학, 교육과정, 인종, 세계화, 혼종성, 언어권리, 젠더, 다문화교육정책, 이민정책, 문화다양성, 언어정책, 시민권, 국가정체성, 재현, 다민족, 백인성, 소수민족, 이민, 의사소통, 이중언어, 이중언어교육
6-core	7-core + 관용, 정책, 정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 문화, 교육, 디아스포라, 사회통합정책, 이슬람, 한국어교재, 신자유주의, 양육행동, 탈식민주의, 자아, 대중문화
5-core	6-core + 다양성, 이주의여성화, 다문화역량, 다문화서비스, 난민, 전통문화, 양육스트레스, 상호작용, 문학교육, 혼혈, 시민교육, 참정권, 에스니시티, 근대성, 식민성, 상호문화성, 민족주의, 방문취업제, 베트남인, 주거공간, 주생활, 기거양식, 노동시장, 고용허가제, 문화다양성협약, 하위주체
4-core	5-core + 인정, 일본, 질적연구, 지역사회, 공동체, 가족, 다문화수용성, 문화적응, 문화적차이, 스토리텔링, 다문화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법, 시민사회, 한국어능력, 손님노동자, 문화다원주의, 다민족국가, 유대인, 조선족, 생활문화, 내용분석, 방리유, 인권, 소수자문학, 한국, 자민족중심주의, 동아시아
3-core	4-core + 이녹파올, 민주주의, 사회화, 공감, 인정의정치학, 문화정체성, 전환학습, 주변화, 공공도서관, 다문화도서관서비스, 이주노동자자녀, 교사교육, 다문화음악교육, 사회, 다문화학습자, 언어문화, 북한이주민, 미디어교육, 세계시민성, 직주불일치, 통근, 초국가성
2-core	3-core + 문화적, 국제결혼이주, 다문화적접근, 동아시아국내이주자, 월경, 스위스

여섯째, 2010년에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논문은 총 362편이고, 전체 키워드 수는 1,320개이고, 이 중에서 k-core 분석에 사용될 출현빈도 2이상인 키워드의 수는 161개이다. k-core 분석 결과를 담은 다음 〈표 11〉에서 2010년 다문화 지식 네트워크는 9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응집력이 강한 키워드들의 집합인 9-core 컴포넌트의 노드 수는 21

개로 나타났다. 이 컴포넌트는 다문화사회, 소수자, 이주, 이주민, 정체성,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다문화, 인권, 세계화 등의 다수의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 응집력이 강한 컴포넌트에 더 많은 키워드들이 포함된다는 것은 연구주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학과 문헌정보학 등의 복합학 분야의 주제가 중요한 연구테마가 되고 있으며, 민족주의, 세계시민주의, 인종주의, 문화다원주의, 문화상대주의, 신자유주의, 초국가주의, 언어제국주의 등으로 사상의 흐름이나 이념 지향 등에 관한 연구주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2010년 다문화연구의 동시단어 네트워크

k-core	키워드
9-core	다문화사회, 소수자, 이주, 이주민, 정체성,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다문화, 인권, 세계화, 다문화정책, 민족, 혼종성, 국민국가, 타자, 민족주의, 디아스포라, 탈영토화
8-core	9-core + 문화다양성, 문화, 국가, 단일민족, 세계시민주의, 혼혈, 사회통합, 하위주체, 에스니시티, 환대, 탈식민주의, 타자성
7-core	8-core + 의사소통, 인정투쟁, 일본, 문화정책, 이민, 네트워크, 문화적응, 갈등, 삶의질, 한국어교육, 사회적지지, 심리적적응, 우울, 자아존중감,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자녀, 한국문학, 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정책, 다양성, 외국인범죄, 범죄예방, 통일교육, 시민성, 이민정책, 독일, 참정권, 정치참여, 교육, 정신건강, 사회갈등
6-core	7-core + 교사, 차이, 종교, 인종주의, 관용, 강제이주, 백석, 동화주의, 문화다원주의, 시선, 중앙아시아, 북한이주민, 공동체, 배제
5-core	6-core + 조계, 고용허가제, 노동시장, 다문화시대, 자아분화, 결혼만족도, 언어발달, 차별, 한국문화교육, 공감, 정보활용능력, 태도, 유학생, 정보리터러시, 사회적정체성, 민족정체성, 이주문학, 부모, 한국어교육기관, 한국어교재, 교사교육, 진단도구, 다문화가족지원법, 불법체류자, 미국, 캐나다, 사회적거리감, 문화적권리, 킴리카, 다문화수용성, 고정관념, 편견, 상호문화주의, 문화다양성협약, 문화상대주의, 시민권, 연대, 전통, 호주, 산업재해, 소수민족, 유태인, 상해, 반유태주의, 읽기교육, 기초학력
4-core	5-core + 이중언어, 화교, 문화정체성, 문화적역량, 시부모, 초등학생, 학교적응, 이민법, 국가정체성, 삶의만족도, 신자유주의, 초국가주의
3-core	4-core + 언어제국주의, 가족탄력성, 농촌지역, 양육태도, 다문화상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적효능감, 다문화인식,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조선족, 질적연구, 상호문화성, 다문화문학, 문화적차이, 타당화, 중국
2-core	3-core + 가정폭력, 결혼적응, 부모애착, 로컬리티, 유아교사, 장소성

이상과 같이 다문화연구는 2005년부터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주제가 확대되고, 또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왔다. 2007년부터 연구가 배로 증가하면서 매년 연구주제들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특히 2009년 들어 다문화 지식 네트워크에 가장 많은 키워드들이 포함되고, 특히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군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키워드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다문화의 연구주제가 새로운 영역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주요 학문분야별 다문화 지식구조의 분석

학문분야에 따라 다문화 지식의 구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학문분야별 동시단

어 네트워크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학문 분야는 한국연구재단 학문분류기준에 따라 공학, 농수해양, 복합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의약학, 인문학, 자연과학이라는 8가지로 나누고, 이 중에서 논문수가 50편 이상인 분야를 중심으로 다문화 지식 네트워크를 파악한다. k-core 분석을 수행할 분야는 복합학,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한정되는데, 여기서 복합학은 감성과학, 문헌정보학, 여성학, 학제간 연구로 나뉘고, 사회과학은 경영학, 경제학, 관광학, 교육학, 기타사회과학, 농업경제학, 무역학, 법학, 사회과학일반, 사회복지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인류학, 정책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지역개발, 지역학, 행정학, 회계학으로 나뉜다. 그리고 인문학은 기독교신학, 기타동양어문학, 기타서양어문학, 기타인문학, 독일어와 문학, 러시아어와 문학, 문학, 스페인어와 문학, 언어학, 역사학, 영어와 문학, 인문학일반, 일본어와 문학, 종교학, 중국어와 문학, 철학, 통역번역학, 프랑스어와 문학, 한국어와 문학으로 구성된다.

먼저, 복합학 분야의 다문화 관련 논문은 총 72편이고, 전체 키워드 수는 307개이며, 이 중에서 출현빈도가 2이상인 키워드는 총 36개이다. 33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k-core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복합학 분야의 다문화 지식 네트워크는 키워드간 응집력의 정도에 따라 6개의 하위집단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응집력이 강한 키워드들의 집합은 7-core 컴포넌트인데, 이 컴포넌트의 노드 수는 총 7개이다. 이 컴포넌트는 결혼이주여성, 결혼중개업, 국제결혼, 몽골, 이주, 인권침해, 인신매매 등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구성되고 있다. 복합학 분야의 세부 학문분야를 검토한 결과, 학제간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주제가 학제간 연구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가 여성학의 주요 연구 쟁점이라는 점에서 연결정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집력을 보이는 5-core 컴포넌트는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정보활용능력, 정보서비스, 이주민, 세계화, 다문화가정, 젠더, 시민권, 다문화, 이주노동자, 정체성, 이민정책, 사회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연계를 이룬다. 여기서는 여성학 분야 외에 문헌정보학의 연구주제도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표 12〉 복합학 분야의 다문화 지식의 네트워크

k-core	키워드
7-core	결혼이주여성, 결혼중개업, 국제결혼, 몽골, 이주, 인권침해, 인신매매
5-core	7-core +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정보활용능력, 정보서비스, 이주민, 세계화, 다문화가정, 젠더, 시민권, 다문화, 이주노동자, 정체성, 이민정책, 사회통합
4-core	5-core + 정보리터러시, 문화갈등, 이민
3-core	4-core + 인종주의, 동화주의, 네트워크, 공공도서관, 다문화도서관서비스, 다문화자료, 다문화도서관, 다문화교육, 포털서비스
2-core	3-core + 다양성

둘째,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에 수록된 다문화논문은 총 781편이고, 전체 키워드 수는 2,291개이며, 이 중에서 k-core 분석에 사용할 출현빈도 5이상인 키워드는 총 75개에 이른다. 다음 〈표 13〉과 같이, 75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k-core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과학분야의 다문화 지식 네트워크는 응집력이 상이한 12개의 하위집단이 존재한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응집력이 강한 키워드들의 집합인 12-core 컴포넌트의 노드 수는 총 26개이다. 이 컴포넌트는 정체성, 소수자, 다문화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국적, 다문화주의, 다문화,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다문화정책, 이주민, 이민, 이주, 다문화가정자녀, 민족, 세계화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복합학 분야에 비해 이주노동자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소수자, 이주민,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주민 등의 다문화주체에 관한 키워드들이 응집력이 강한 키워드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다문화정책, 이민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 고용허가제, 소수자정책, 산업연수생제도 등의 정책, 제도, 법률 관련 키워드들과 민족주의, 신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이념에 관한 용어들이 사회과학분야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사회과학 분야의 다문화 지식의 네트워크

k-core	키워드
12-core	정체성, 소수자, 다문화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국적, 다문화주의, 다문화,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다문화정책, 이주민, 이민, 이주, 다문화가정자녀, 민족, 세계화, 시민권, 사회통합, 국민국가, 문화다양성, 에스니시티, 민족주의, 북한이주민
11-core	12-core + 다양성, 문화, 인종, 인종주의, 민족정체성
10-core	11-core + 일본, 이민정책, 문화적응, 한국, 난민, 독일유럽연합
8-core	10-core + 재현, 다문화가족지원법, 고용허가제, 노동시장, 질적연구, 사회적지지, 적응, 네트워크, 우울, 자아존중감, 이주의여성화, 이슬람, 다문화수용성, 젠더, 문화적응스트레스, 편견, 불법체류자, 동화주의, 시민사회, 사회적거리감, 소수자정책, 국가정체성, 디아스포라
7-core	8-core + 원주민, 미국, 문화다원주의, 신자유주의, 동화, 조선족, 산업연수생제도
6-core	7-core + 문화정체성, 민주주의, 교사교육
5-core	6-core + 언어발달, 결혼만족도, 다문화교육프로그램, 문화다양성협약

셋째, 인문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논문은 총 581편이고, 전체 키워드 수는 2,547개이며, 이 중에서 k-core 분석을 수행할 키워드는 출현빈도 5회 이상인 55개의 키워드들이다. k-core 분석 결과, 인문학분야 다문화 지식의 네트워크는 12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응집력이 강한 키워드들의 집합은 12-core집단으로, 이 컴포넌트의 노드 수는 총 22개이다. 이 컴포넌트는 다문화사회, 이주민, 인종주의, 정체성,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이주, 소수자, 타자, 이주노동자, 혼종성,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사회통합, 민족, 단일민족, 세계화, 탈식민주의, 혼혈, 디아스포라, 민족주의, 하위주체라는 키워드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집력을 보이는 11-core 컴포넌트는 문화, 이민, 다문화시대, 다문화가정자녀, 인권, 배제라는 키워드가 연계되어 있다. 인문학 분야는 제국주의, 만주, 당과 같이 역사적 키워드와 한국문학, 이주문학 등의 문학용어, 그리고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재, 한국어 등의 어학 용어가 다른 학문분야와 상이한 연구테마로 다루어지고 있다.

〈표 14〉 인문학 분야의 다문화 지식의 네트워크

k-core	키워드
12-core	다문화사회, 이주민, 인종주의, 정체성,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이주, 소수자, 타자, 이주노동자, 혼종성,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사회통합, 민족, 단일민족, 세계화, 탈식민주의, 혼혈, 디아스포라, 민족주의, 하위주체
11-core	12-core + 문화, 이민, 다문화시대, 다문화가정자녀, 인권, 배제
10-core	11-core + 시선, 문화다양성,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재, 이슬람, 한국문학, 차이, 기억
9-core	10-core + 의사소통, 이주문학, 제국주의, 국민국가
8-core	9-core + 관용, 문화정체성, 한국어
7-core	8-core + 문화다원주의
6-core	7-core + 일본, 만주국, 젠더
5-core	6-core + 화교, 다문화문식성, 상호문화성, 통일적다민족국가론
4-core	5-core + 만주
3-core	4-core + 당, 이민법

이상과 같이, 복합학, 사회과학, 인문학을 중심으로 다문화 지식구조를 분석한 결과, 학문분야에 따라 연구주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연구주제는 공통적으로 발견되었고, 학문분야의 고유 특성을 담고 있는 특정한 연구주제도 응집력이 강한 키워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이주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이주, 정체성 등과 같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들은 학문분야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고, 높은 응집력을 보이는 키워드 집단에 속해 있었다. 반면에 수위를 차지하는 키워드 중에는 정보활용능력, 정보리터러시, 에스니시티, 문화다양성, 우울, 한국문학, 이주문학, 다문화가족지원법 등과 같이 문헌정보학, 사회학, 심리학, 문학, 행정학 등으로 고유 영역의 연구주제들도 발견되었다. 결국, 개별 학문분야에서 연구주제의 분리와 융합이 공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된 등재(후보)학술지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한국 다문화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핵심 연구주제를 추출하였으며, 연도별·분야별 다문화 지식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취지는 다문화분야의 중요한 연구주제와 패러다임의 변

화를 파악함으로써 다문화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체계화하고, 향후 다문화연구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다문화연구는 단독연구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며, 대체로 2005년 이후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과학과 인문학분야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학문 전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학문간 융합현상은 다문화연구에서는 미약한데, 다문화현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어떤 분야보다도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 다문화분야의 핵심 연구주제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이주노동자,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 이주민, 정체성, 소수자 등으로 다문화에 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키워드 혹은 다문화주체를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핵심 연구주제를 이룬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188회로 출현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담론의 형성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맥을 같이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가 구체화, 사회화되면서 사회적, 정책적 차원에서 다문화담론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셋째, 다문화연구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용어들의 정리와 용어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다문화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을 가리키는 용어가 무려 2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주민 등의 용어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자들에 의한 상이한 용어 사용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와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동시 출현 키워드를 대상으로 클러스터링을 시도한 결과, 클러스터 내에 이질적인 성격의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 다문화연구가 특성에 따라 분화되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문화연구가 아직은 초기형성단계이지만, 다문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지만 연구 주제들 간에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연구주제들이 상호 응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다문화연구의 분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그 동안 다문화연구가 분화되지 않은 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되어 온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연도별 다문화 지식구조의 분석 결과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05년 이후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주제가 보다 다양해지고, 또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9년 들어 다문화 지식 네트워크에 상당히 많은 키워드들이 포함되고, 연결정도가 매우 높은 집단군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키워드들이 다수 등장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새로운 키워드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영역의 용어들이다. 이것은 다문화의 연구주제가

새로운 영역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09년을 기점으로 다문화연구가 보다 높은 진화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학문분야에 따라 연구주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였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연구주제는 학문분야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고, 특수한 연구주제들은 학문분야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예컨대,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이주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이주, 정체성 등과 같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키워드들은 모든 학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고, 또 응집력이 강한 키워드집단에 속해 있었다. 반면에 수위를 차지하는 키워드 중에는 학문 고유의 연구주제들도 발견되었다. 결국, 학문분야에 따라 연구주제의 분리와 융합이 공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분석 방법상의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인 동시단어분석은 특정분야의 지식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단어분석은 저자들이 "직접" 작성한 키워드에서 동시 출현하는 단어들의 빈도를 기반으로 하므로, 동시 출현 단어의 연계성이 문장, 단락 등의 맥락에 따라 현저히 다를 수 있고, 키워드를 작성한 색인자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으며, 분석대상으로 삼는 단어들을 추출하여 통제하는 과정에서 임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 한계를 지닌다. 색인어의 통제작업은 단어들을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여 묶거나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 제거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결과를 변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